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 뜬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나)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터진 살갓에 새겨진 ㉠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뻗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 신경림, 『나목(裸木)』 -

(다)

㉡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 엽동 흑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적 대상의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유사 어구의 점층적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2.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후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관념적인 고민과 무기력 속에서 동경 유학 생활을 하던 대학생 '이인화'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귀향길에 오른다. 형사의 감시를 받으며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그는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보게 되고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부산에 도착한 이인화는 서울까지 오는 기차 안에서 그리고 역 주변에서 궁핍한 삶에 허덕이는 조선인들의 비참한 삶, 아직도 허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일본인들의 경제적 침략의 실상을 목도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 울분을 느끼며 분노하지만 동시에 조선인들의 인간적 품위를 잃은 비굴함과 허례 의식에 대해 혐오와 환멸을 느낀다. 결국 아내는 죽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는 서둘러 동경으로 돌아간다.

- ① (가)와 <보기>에는 공통적으로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화자의 여정이 나타나 있어.
- ② 그리고 그 여정은 결과적으로 탐색의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이어.

- ③ 또한 (가)와 <보기>의 여정에는 모두 상황과 의지가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 있어.
- ④ 하지만 (가)는 화자의 내면 인식에, <보기>는 인물의 현실 인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 ⑤ 그 차이는 (가)에 설정된 화자와 <보기>에 설정된 인물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3. (나)의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 ① 하은 : 나목에 공감하는 존재로서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을 제시하여 자연과 인간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지선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깊은 울음'을 우는 나목의 이미지와 중첩되는 표현으로 화자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③ 강희 : 나목의 모습에서 이상 실현이 좌절된 자의 모습을 유추하고 이를 동정하는 존재로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을 제시하여 좌절된 이상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표현하고 있어.
- ④ 경수 :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슬픔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존재로, 나목에서 자신의 모습을 엿본 화자라 할 수 있어.
- ⑤ 재호 :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나목과 혼자서 '우는 사람'의 모습을 대비시켜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4. ㉠~㉣ 중, ㉠이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5. ㉠과 유사한 발상이 나타나 있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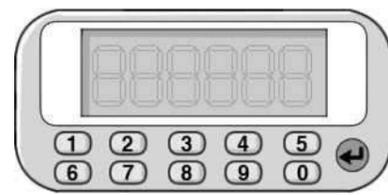
- ① 벼는 서로 어우러져 / 기대고 산다. / 햇살 따가워질수록 /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②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 나도 아니다. /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서 보는 날도 /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 ③ 함박눈은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렐 부르며 / 눈사람을 기다리는 노렐 부르며 / 이 겨울 밤거리의 눈사람이 되었네
- ④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아아, 마침내, 끝끝내 /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 피는 나무이다
- ⑤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적이다.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인증받는 흔한 방법은

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증 기법이 OTP(One-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기술이다. OTP 기술은 사용자가 금융 거래 인증을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증받는 방식이다.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비동기화 방식은 OTP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인증 서버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OTP 기술 도입 초기에 사용된 질의 응답 방식은 인증 서버가 임의의 6



<초기 OTP 발생기>

자리 수, 즉 질의값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그 수를 OTP발생기에 입력하고, OTP발생기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한다. 사용자는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 인증 서버는 입력된 값을 확인한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OTP발생기에 질의값을 직접 입력해 응답값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

이와 달리 동기화 방식은 OTP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촉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OTP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기촉값이란 사용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한 값이며, 카운트값이란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이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이벤트 동기화 방식의 OTP발생기는 기촉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된다. ㉡이때 OTP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값을 증가시킨다. 인증 서버 역시 기촉값과 카운트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로 입력된 OTP발생기의 비밀번호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OTP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에 카운트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시간 동기화 방식은 현재 금융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촉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 OTP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일방향 함수란 계산하기는 쉽지만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로, 곱셈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가]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발생기는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촉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 를 구하고,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 번 수행하여 X_n 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X_n 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로그인 서버는 입력된 X_n 을 일방향 함수 f 로 한 번 더 계산해 X_{n+1} 을 구하고 이 값을 인증 서버로 전달하게 된다. 인증 서버 역시 기숫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 를 구하고,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1$ 번 수행하여 X_{n+1} 을 생성한 후 로그인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값과 비교하여 인증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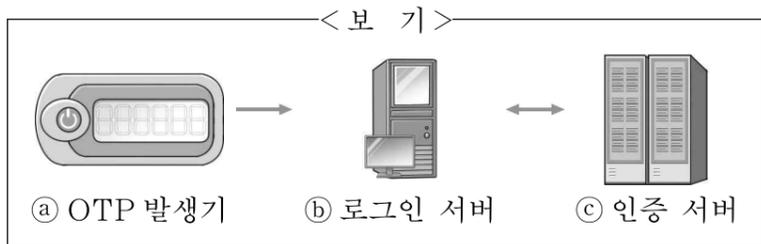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에는 인증 서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전자시계가 장착되어 있어 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 서버와 OTP 발생기 간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 또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도 제약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 동기화 : 서로 일관성 있게 같은 값을 유지하는 것. 같은 시점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

6.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시간 동기화 방식에 비해 로그인 서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② 비동기화 방식의 OTP 기술에서는 OTP 발생기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값을 인증 서버에 입력해야 인증에 성공한다.
- ③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는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다.
- ④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는 비밀번호 생성 간격을 짧게 할수록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가 감소할 것이다.
- ⑤ 질의 응답 방식에서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입력한 임의의 6자리 수는 응답값과 일치할 것이다.

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인증에 성공하였다면 사용자가 a에서 b로 보낸 비밀번호와 b에서 생성한 인증값은 같을 것이다.
- ②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a와 c 사이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a에서 생성한 비밀번호로는 인증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③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는 기숫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a는 비밀번호를, c는 인증값을 생성할 것이다.
- ④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기만 하고 인증하지 않는다면 a와 c의 카운트값이 서로 달라질 것이다.
- ⑤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가 생성한 비밀번호로 인증을 받았다면 c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 다음번 인증에 반영할 것이다.

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밀번호가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 ② 인증 서버의 응답값과 카운트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 ③ 인증에 성공할 때마다 기숫값을 동기화하기 위해
- ④ 인증에 실패 시 이전 비밀번호를 복원하기 위해
- ⑤ OTP 발생기의 질의값이 갱신되도록 하기 위해

9.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모두 각자의 OTP 발생기를 통해 ㉠ 2019년 3월 7일 오전 10:00에 인증을 시도하고, ㉡ 오전 10:30에 인증을 다시 시도하였다. 그리고 ㉢ 다음날 오전 10:30에 다시 인증을 시도하였다.

- ① ㉠에서 X_n 이 노출되더라도 r 는 알아내기가 어렵겠군.
- ② ㉠과 ㉡에서 사용자 A의 r 는 서로 다르겠군.
- ③ ㉡과 ㉢에서 함수 f 를 n 번 수행한 X_n 은 같겠군.
- ④ ㉢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숫값은 서로 다르겠군.
- ⑤ ㉠~㉢에서 사용자 B의 X_{n+1} 들은 서로 다르겠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예방 소임을 맡아 제주에 온 배비장은 어머니와 부인에게 여자에게 빠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방자에게까지 큰소리친다. 그러나 제주 목사의 지시로 기생 애랑이 유혹하자 한눈에 반하고 만다. 그래서 애랑에게 편지를 보낸 후 답장을 받는다.

강호에 병이 들어 덧없이 죽겠더니, 낭자 회답이 반갑도다. 삼경에 기약 두고 해지기만 바라더니 석양이 다 저 간다.

방자 입시(入侍) 보내고 빈 방 안에 문을 닫고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다시 의관을 차릴 적에, 망건 위에 탕건 쓰고 그 위에 병거지 올려 쓰고, 철릭 위에 쾌자 입고 허리에는 관대 두르고 활과 화살 주머니를 제법 격식 있게 갖추고 빈방 안에 혼자 우뚝 서서 도깨비 들린 듯이 혼잣말로 두런거리며 습의(習儀)*하고 하는 말이,

“가만가만 걸어가서 여자 문전에 들어서며 기침 한번을 가만히 하면 그 여인이 김새를 채고 문을 펼쩍 열렸다. 걸음을 한번 대학지도로 이리 걸어 들어가 수인사후(修人事後)에 대천명(待天命)이라 하니, 여자에게 한번이되 군례(軍禮)로 보렸다.”

한창 이리 습의할 제, 방자놈이 뜻밖에 문을 펼쩍 열며 하는 말이,

“나으리, 무엇하오?”

배비장 깜짝 놀라,

“너 벌써 왔느냐?”

“예, 군례 전에 대령하였소.”

“이놈, 내 깜짝 놀라 바로 땀이 난다.”

하며 방자 앞세운 채로 썩 나서니, 달이 진 산에 까마귀 울고

고기 잡는 불빛이 물에 비친다. 앞개울에 있던 사람은 돌아가고, 춘풍에 학이 운다. 전 기약 맺은 낭자 이 밤중에 어서 가자. 거들거려 갈 제 방자놈 이르는 말이,

[A] “나으리 소견 바이 없소. 밤중에 유부녀 통간 가오면서 비단 옷 입고 저리 하고 가다가는 될 일도 못 될 것이니, 그 의관 다 벗으시오.”
“벗기는 초라하구나.”
“초라커든 가지 마옵시다.”
“애야, 요란히 굴지 마라. 내 벗으마.”

활짝 벗고 알몸으로 서서,
“어떠하니?”

“그것이 원 좋소마는, 누구 보면 한라산 매사냥꾼으로 알겠소. 제주 인물 복색으로 차리시오.”

“제주 인물 복색은 어떤 것이냐?”

[B]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핑거지*를 쓰시오.”
“그것은 과히 초라하구나.”
“초라하커든 그만두시오.”
“그리하단 말이로다. 개가죽 아니라, 도야지 가죽이라도 내 입으마.”

하더니, 구록피(狗鹿皮) 두루마기에 노핑거지를 쓰고 나서서 앞뒤를 살펴보며,

“애야, 범 보면 개로 알겠다. 군기총(軍器銃) 하나만 내어 들고 가자.”

“무섭커든 가지 마옵시다.”

“애야, 그리하단 말이로다. 네 성정 그러한 줄 몰랐구나. 정 못 갈 터이면 내 업고라도 가마.”

배비장 뒤를 따라 가며 하는 말이,

“기약 든 사랑 여자 어서 가 반겨보자.”

서쪽 창문으로 돌아들어 동편 소나무 계단에 다다르니, 북쪽 창에 밝게 쬐 불 외로운 등은 한 점이요, 야색은 삼경이라. 높은 담 궁궐 찾아가서 방자 먼저 기어들며,

“취, 나으리 잘못하다가는 일 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묘리(妙理) 있게 들이미시오.”

배비장이 방자 말을 옹계 듣고 두 발을 모아 들이미자, 방자 놀이 안에서 배비장의 두 발목을 모아 쥐고 힘껏 잡아당기니, 부른 배가 딱 걸려서 들도 나도 아니하는지라,

[C] 배비장 두 눈을 희게 뜨고 이를 갈며,
“좀 놓아다고!”
하면서, 죽어도 문자(文字)는 쓰는 것이었다.
“포복불입(飽腹不入)하니 출분이기사(出糞而幾死)로다.*”
방자 안에서 웃으며 탁 놓으니, 배비장이 곤두박질하여 일어 앉으며 하는 말이,

“매사(每事)가 순리로 아니 되니 대패(大敗)로다. 산모(產母)의 해산법으로 말하여도 아해를 머리부터 낳아야 순산이다 하니, 내 상투를 들이미길 것이니 잘 잡아 다려라.”

방자놈이 배비장 상투를 노핑거지 쓴 채 왈각 잡아당기니, 아무리 하여도 나온 줄 모르겠다. 사지부생(死地復生)이라, 원명(元命)이 재천(在天)이로다. 땡 하고 들어가니 배비장이 아프단 말도 못 하고,

“어허, 아마도 내 등에는 끈질끈자판을 놓았나 보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 습의 : 행동을 미리 연습함.

* 노핑거지 : 노병거지의 잘못.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끈 줄로 엮어서 만든 병거지.

* 포복불입하니 출분이기사로다 : 배가 불러 들어갈 수 없으니 똥이 나와 죽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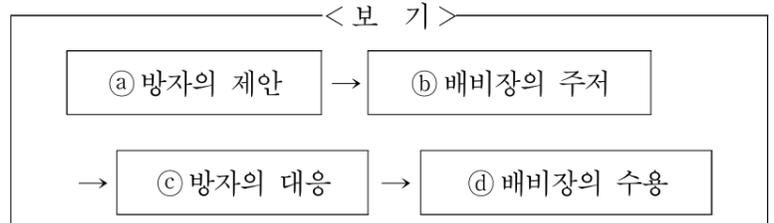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건을 관찰하고 있다.
- ③ 행동의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기지와 재치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을 비웃고 있다.
- ⑤ 사건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입체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11. '배비장'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
- ②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 ③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
- ④ 여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 ⑤ 양반의 체통보다는 욕망을 따르고 있다.

12. [A]와 [B]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화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양반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② ㉡는 ㉠의 속뜻을 알아차리고 망설이는 것이다.
- ③ ㉢는 자신의 의도를 관찰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 ④ ㉣는 ㉢의 인물이 예상한 결과이다.
- ⑤ ㉣의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이다

13. [C]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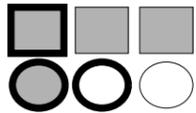
- ① 조삼모사(朝三暮四)
- ② 허장성세(虛張聲勢)
-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 ④ 호가호위(狐假虎威)
- ⑤ 아전인수(我田引水)

[14~1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단 논증은 두 개의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이다. 이때 두 전제로부터 그 결론만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규칙에 따라 추론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추론 과정에서 자주 오류를 범한다. 인지 실험 연구자들은 삼단 논증의 추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 현상에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오류의 원인을 분석했다.

인지적 측면에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최초의 주요 이론은 '분위기 이론'이다. 분위기 이론은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에서 <어떤 A는 C이다.>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에도,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전제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전제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전칭('모든')인가 특칭('어떤')인가에 따라 일정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분위기 이론은 사람들이 두 전제가 모두 긍정문이면 긍정 결론을, 하나라도 부정문이면 부정 결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두 전제가 모두 전칭이면 전칭 결론을, 하나라도 특칭이면 특칭 결론을 선호한다고 본다. 하지만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삼단 논증에 대한 사람들의 상이한 반응을 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 따라서 어떤 A는 C이다.>라는 부당한 논증과 <어떤 A는 B이다. 모든 B는 C이다. 따라서 어떤 A는 C이다.>라는 타당한 논증이 주어졌을 때, 분위기 이론은 피험자들이 두 논증의 결론을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왜냐하면 전제 하나가 특칭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험자들은 타당한 논증인 후자를 부당한 논증인 전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를 선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이론으로는 구체적으로 추론의 어떤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삼단 논증에서 오류를 범하는 이유를 그 추론 과정에 주목하여 분석한 것으로는 '심적 모형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삼단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 모형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설명한다. 가령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에서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전제로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심적 모형을 상상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피험자들은 삼단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 모형을 살펴보고 결론이 만족스럽다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이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다른 심적 모형을 마음속에서 표상한다면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이 전제로부터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심적 모형 이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람들이 이러한 모형 구성에 실패하기 때문에 삼단 논증 추론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삼단 논증 추론에서 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명제의 잘못된 '환위'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론도 있다. 환위란 주어진 명제에서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모든 A는 B이다.>를 <모든 B는 A이다.>로, <어떤 A는 B가 아니다.>를 <어떤 B는 A가 아니다.>로 환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환위가 비논리적 결과를 야기한다. 즉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이 아니므로 논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사람들은 결론이 담고 있는 내용에 영향을 받아 오류를 범할 때도 있다. 피험자들은 두 전제로부터 그 결론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와 정합적이거나 적어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성향, 이른바 '믿음 편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에번스는 사람들이 일단 결론의 믿을 만함을 평가하고, 믿을 만하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①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제야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여 삼단 논증을 점검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플라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②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해서 그에 따라 믿음 편향 효과가 더 증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지 오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부 인지 심리학자들은 여러 실용적 목적에서 효율적인 수준이라고 만족한다면 사람들이 합리성이나 논리적 정합성을 기꺼이 버리는 사고를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지적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 관점과 달리 인간이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1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지 오류 현상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설명하며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인지 오류 이론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인지 능력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인지 오류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인지 오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이론들을 소개하며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간의 논리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 오류 이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15. ①을 뒷받침하는 심적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16. ㉠와 ㉡를 통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일어난다.
- ② 믿음 편향이 강할수록 개인의 합리성은 증가한다.
- ③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에 능숙할수록 자주 일어난다.
- ④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믿음 편향 효과가 발휘된다.
- ⑤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논리적 규칙 적용이 수행되기 어렵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어떤 인류학자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모든 생물학자들은 바둑 기사이다.
따라서 어떤 인류학자는 바둑 기사가 아니다.

- ① 전제들을 <어떤 생물학자는 인류학자가 아니다.>와 <모든 바둑 기사는 생물학자이다.>로 환위할 경우 환위하기 전과 뜻이 달라지게 되겠군.
- ② 심적 모형 이론은, 전제로부터 가능한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잘못 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겠군.
- ③ 분위기 이론은, 전제에서 특칭과 부정이 사용되었으므로 이것에 영향을 받아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④ 에번스는, 인류학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바둑 기사일 리 없다는 믿음 편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⑤ 분위기 이론은, 첫 번째 전제의 특칭을 전칭으로, 두 번째 전제의 전칭을 특칭으로 바꾼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보기>의 논증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겠군.